

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류 용 옥 (yoryu11@kdb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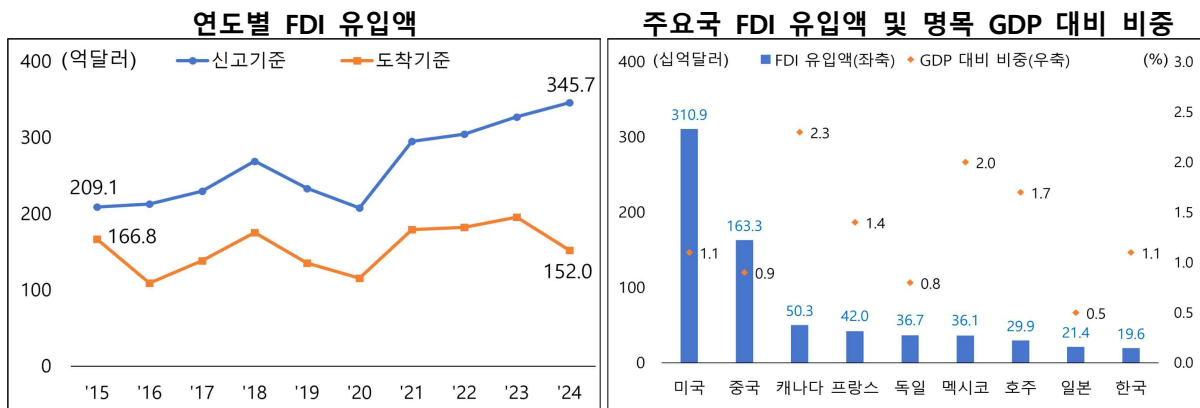
- ◆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착기준으로는 높은 수준이 아니며, 산업별로는 금융·보험,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모습
- ◆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,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, 비수도권 특화 정책 및 홍보전략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도 완화할 필요

□ 최근 10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(FDI 유입)는 신고기준*으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, 도착기준으로는 정체하고 있는 상황

* 신고기준 :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신고 금액, 도착기준 : 국내에 실제 송금을 완료한 금액

- 신고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'24년 345.7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, 도착금액의 경우 '21년 이후의 증가세가 꺾이며 '21년(179.4억달러)보다도 낮은 152.0억달러를 기록
 - 신고와 도착 간의 시차, 투자 지연·취소 등으로 신고와 도착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, '21년 이후 신고와 도착금액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은 조달 금리가 낮아질 것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송금 지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
- 한편,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FDI 유입액 비중은 2023년 도착금액 기준 1.1% 수준으로 독일(0.8%), 일본(0.5%) 등을 제외하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
- 또한, 최근 10년 해외직접투자(유출)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유입 대비 유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 FDI 유입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
 - FDI 유입 대비 유출 비중* : 1.8('15년) → 3.0('18년) → 4.3('21년) → 4.2('24년)

* FDI 유출액을 유입액으로 나눈 값으로, 1이 넘으면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크다는 의미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주 : 2023년 도착금액 기준

자료 : UNCTAD(유엔무역개발회의), OEC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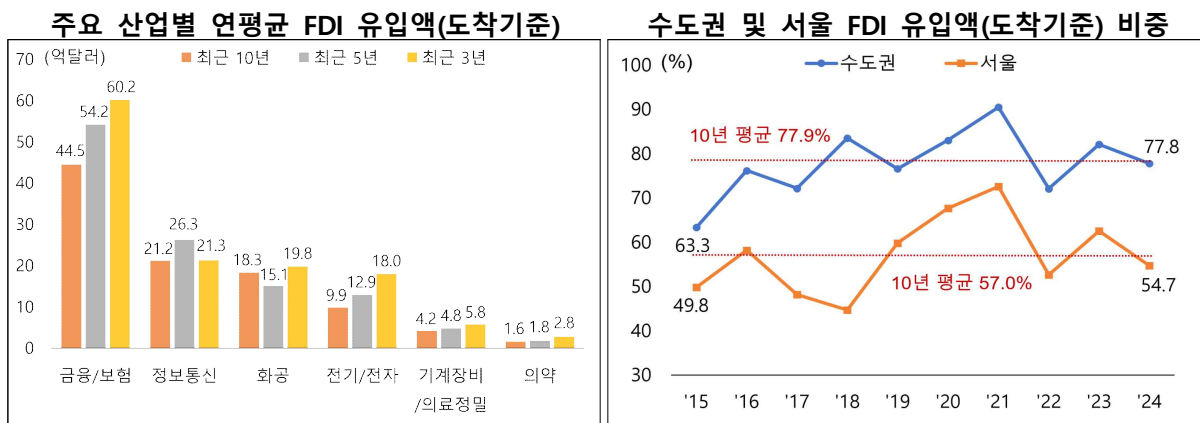
□ 산업별로는 금융·보험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

- 주요 산업별 연평균* FDI 유입액을 비교해 보면, 금융·보험이 꾸준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는 모습

* 연도별로 산업별 FDI 유입액은 매년 시장 상황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연도별 비교 대신 최근 10년, 5년, 3년으로 구분하고 연평균 FDI를 계산하여 최근의 흐름을 확인

- 정보통신과 화공은 전통적인 중요 산업으로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
- 전기·전자, 기계장비·의료정밀, 의약 산업은 최근 들어 투자가 확대되며 최근 10년 대비 최근 3년 평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

- 한편, FDI 유입이 수도권, 특히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모습
 - 수도권 편중 현상이 지난 10년간 더욱 심해지며 '24년에는 수도권 77.8%, 서울 54.7%를 기록하였고, 10년 평균도 수도권 77.9%, 서울 57.0%로 매우 높은 수준



주 : 최근 10년('15~'24년), 5년('20~'24년), 3년('22~'24년)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□ 국내 생산 증대, 고용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 쏠림 현상도 해결해야 할 필요

-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강화,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, 외국인 근로자 지원 확대 등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
 - 특히, 최근 FDI 유입이 확대되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도체, 바이오 등의 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여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도모

-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* 지정 확대 및 운영 내실화, 지자체별 추가 인센티브 제공 및 특화된 홍보전략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필요

* 규제완화 및 경제개방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외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경제 전문 특별 구역